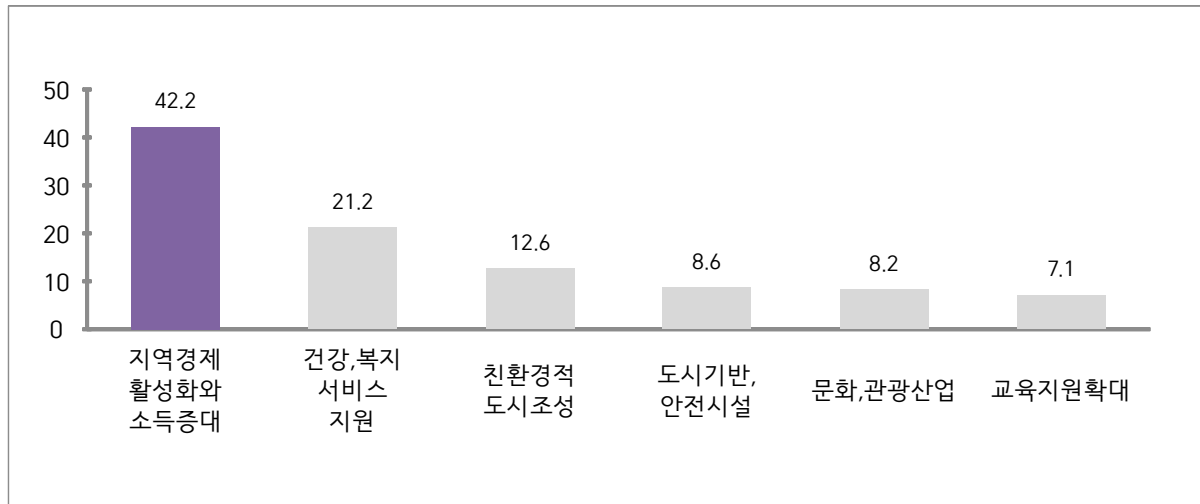


2022년 부산사회조사(남구) 결과

남구 특성항목

1. 남구 발전을 위한 중점사항



“남구 발전을 위한 중점사항”에 대한 응답은 「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(42.2%)」, 「건강·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(21.2%)」, 「친환경적 도시조성(12.6%)」, 「도시기반·안전시설 확충(8.6%)」, 「문화·관광 산업 육성(8.2%)」, 「교육지원 확대(7.1%)」로 나타남

2. 구정정보 획득 경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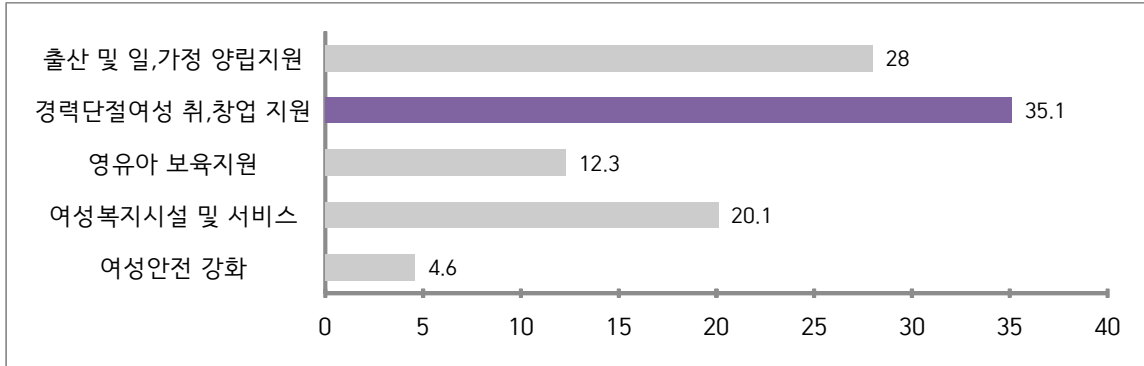
「남구소식지(남구신문)(26.4%)」, 「TV, 라디오, 신문 등 언론매체(25.4%)」, 「현수막, 전광판 등 홍보물(22.8%)」, 「각종 SNS (유튜브, 페이스북, 블로그 등)12.7%」 「남구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(8.4%)」, 「공무원 및 통·반장을 통해서(4.3%)」순임

3. 인구증가 방안(복수응답)

「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(51%)」, 「지원금 지급(신혼부부 주거지원,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)(37.9%)」, 「교육 및 보육환경 개선(25.9%)」, 「여가·편의시설 확충(25.9%)」, 「재개발·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(25.5%)」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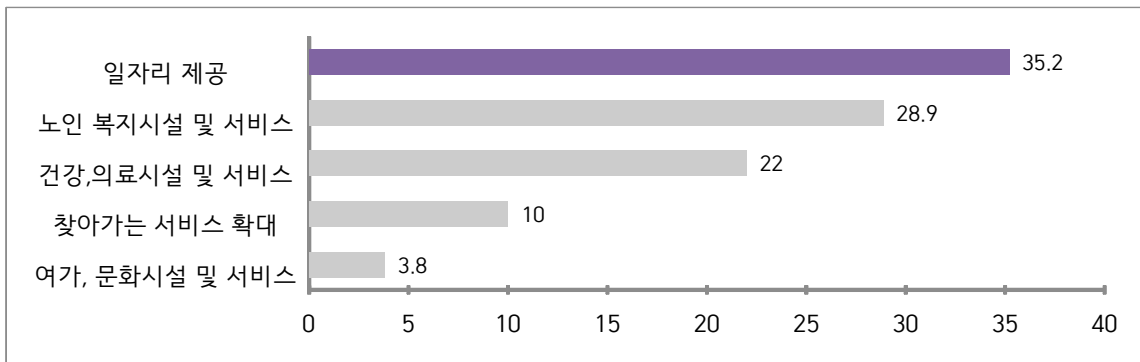
남구 특성항목

4-1. 대상자별 필요 시책 (여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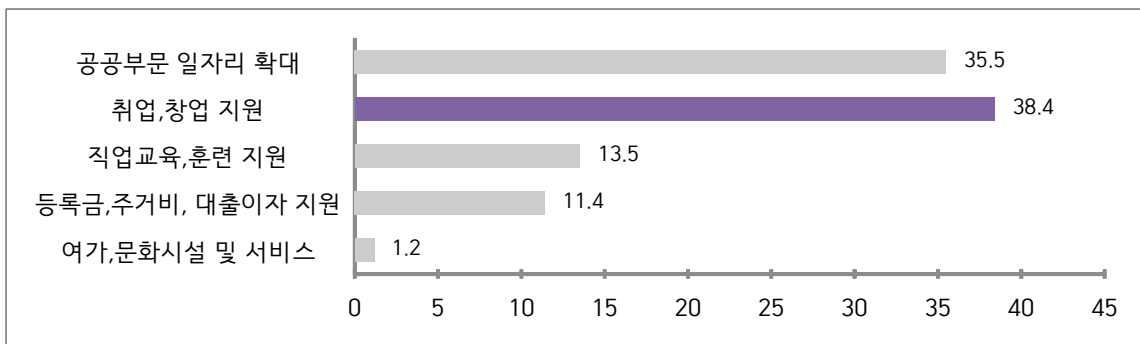
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「경력단절여성의 취·창업 지원(35.1%)」, 「출산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(28%)」, 「여성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대(20.1%)」, 「영유아 보육 지원(12.3%)」, 「여성안전 강화(4.6%)」 순으로 나타남

4-2. 대상자별 필요 시책 (노인)



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「일자리 제공(35.2%)」, 「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(28.9%)」, 「건강의료시설 및 서비스(22%)」, 「찾아가는 서비스 확대(10%)」, 「여가문화시설 및 서비스(3.8%)」 순

4-3. 대상자별 필요 시책 (청년)



「취업 및 창업 지원(38.4%)」, 「공공부문 일자리 확대(35.5%)」, 「직업 교육·훈련 지원(13.5%)」, 「등록금, 주거비, 대출이자 지원(11.4%)」, 「여가문화시설 및 서비스 확대(1.2%)」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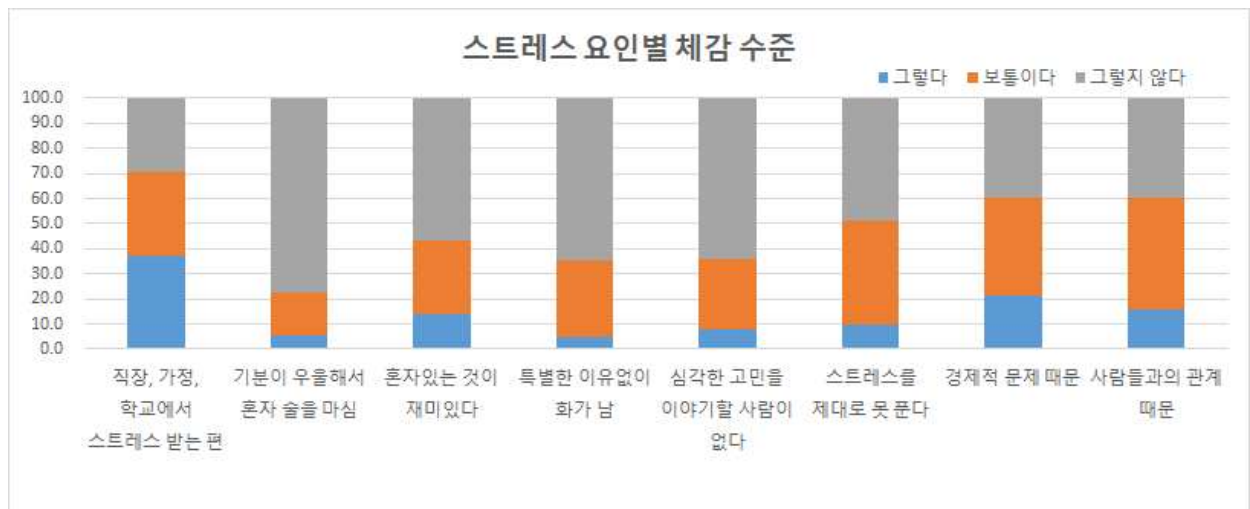
건 강

1. 운동여부 및 횟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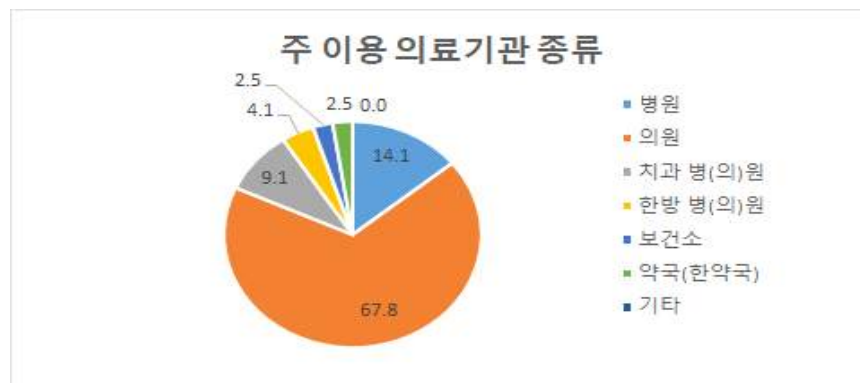
- 만 15세 이상 인구 중 42.5%가 운동을 하며, 1주일 평균 운동일수는 3.5일, 1회 평균 운동시간은 1시간 12분으로 나타남
- 응답자 중 57.5%가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운동하지 않은 이유는 「바쁘고 시간이 없어서」가 50.4%로 가장 높음

2.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

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은 「직장·가정·학교(37%)」, 「경제적 문제(21.4%)」, 「사람들과의 관계(15.8%)」 순으로 높음



3.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이용 기관



응답자 중 81.9%가 「병·의원(81.9%)」을 이용하였고, 가장 큰 이용 사유는 「집, 직장 등과 가까워서(70.9%)」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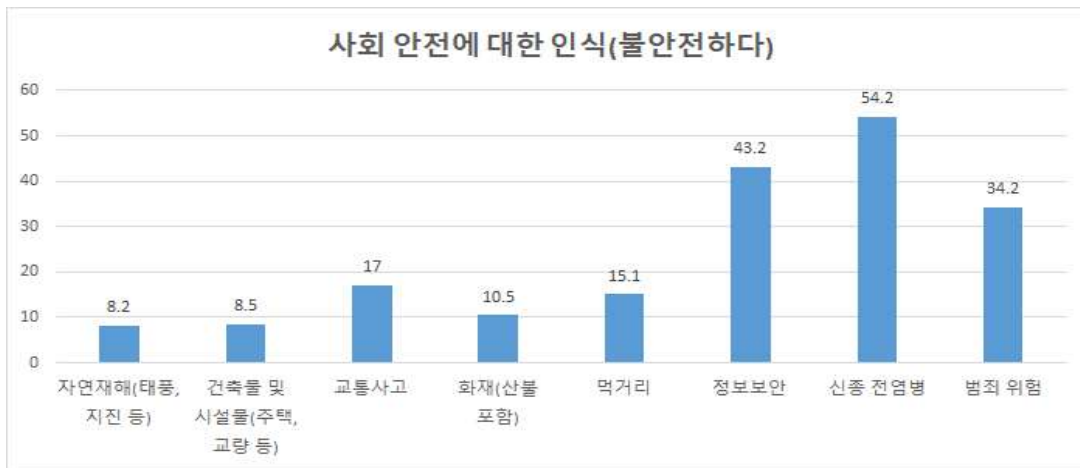
4.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

「적절한 식사 및 영양보충(31.2%)」이 주된 방안이라고 응답함

안 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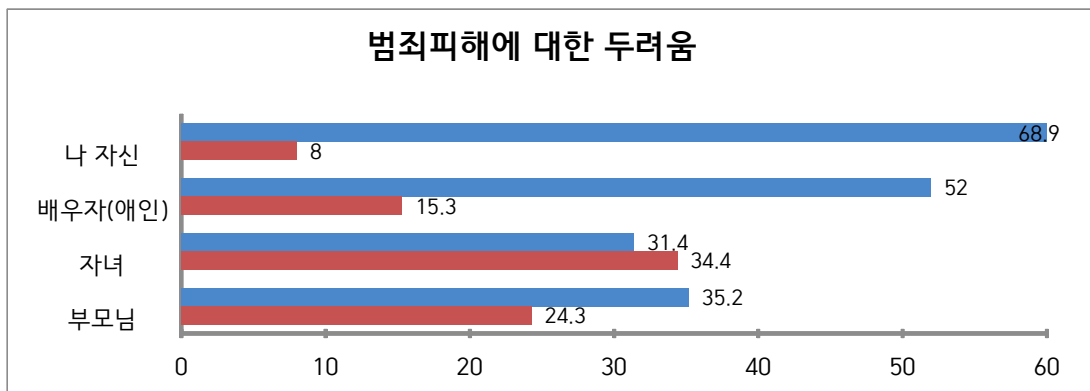
1.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

- “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”을 조사한 결과 「전반적인 사회 안전」에 대해서 10명중 3.9명이 「안전하다(39.4%)」라고 응답함
- 15세 이상 구민 10명 중 5.4명이 「신종전염병(54.2%)」에 대해 가장 많이 “불안전하다”고 응답함



2.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

범죄피해에 대해서 「두렵지 않다」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나,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「두렵다」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



3. 재난·안전사고 경험 및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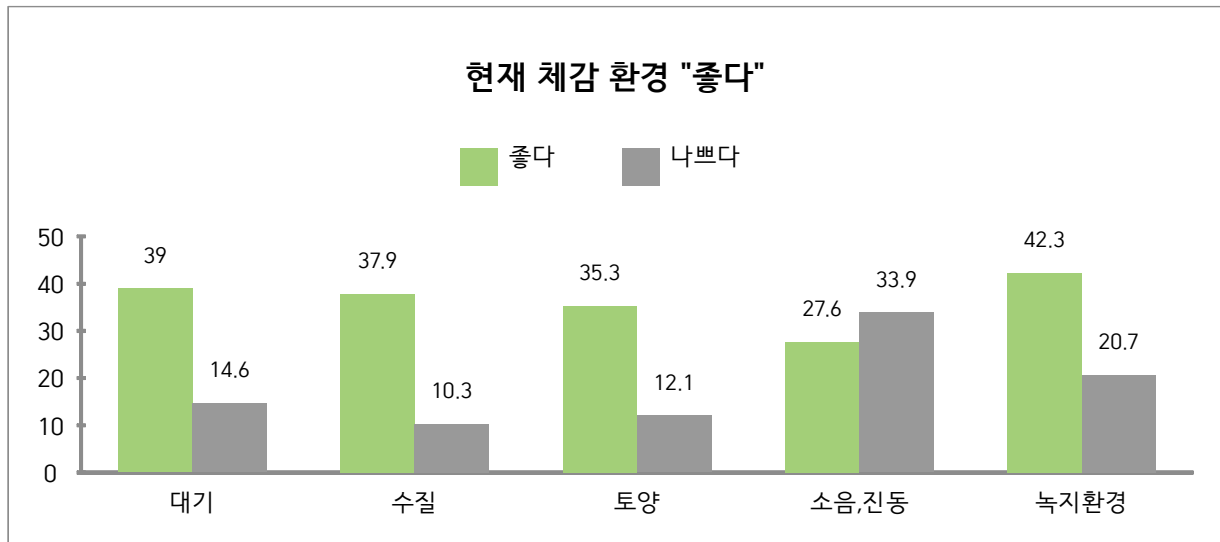
지난 1년간 경험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사고는 「낙상/추락/미끄러짐/물에 빠짐(55.3%)」, 「교통사고(36.2%)」 등의 순임

4. 최우선 시행 안전사업(복수 응답)

최우선 시행 안전사업은 「범죄폭력예방사업(44.7%)」, 「생활안전 예방사업(36.6%)」, 「교통안전사업(31.1%)」 순이라 생각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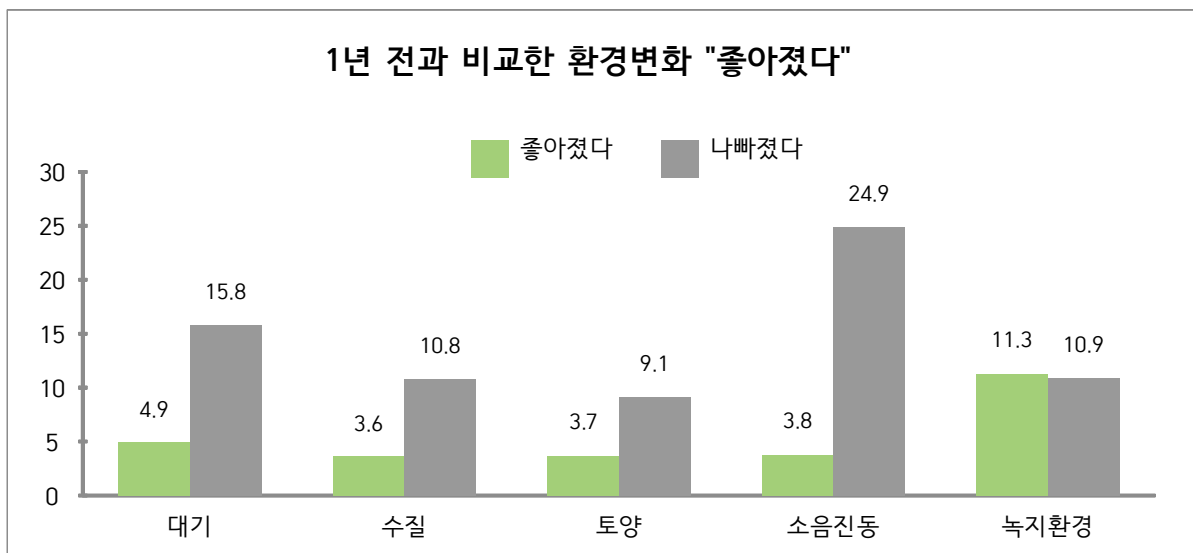
환 경

1. 현재 체감 환경



- 현재 체감 환경을 조사한 결과 대기, 수질, 토양, 녹지환경은 「나쁘다」보다 「좋다」는 의견이 더 많아,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
- “소음·진동”은 「나쁘다」는 의견이 33.9%로 시민들이 가장 불만족하는 환경으로 나타남

2. 1년 전과 비교한 환경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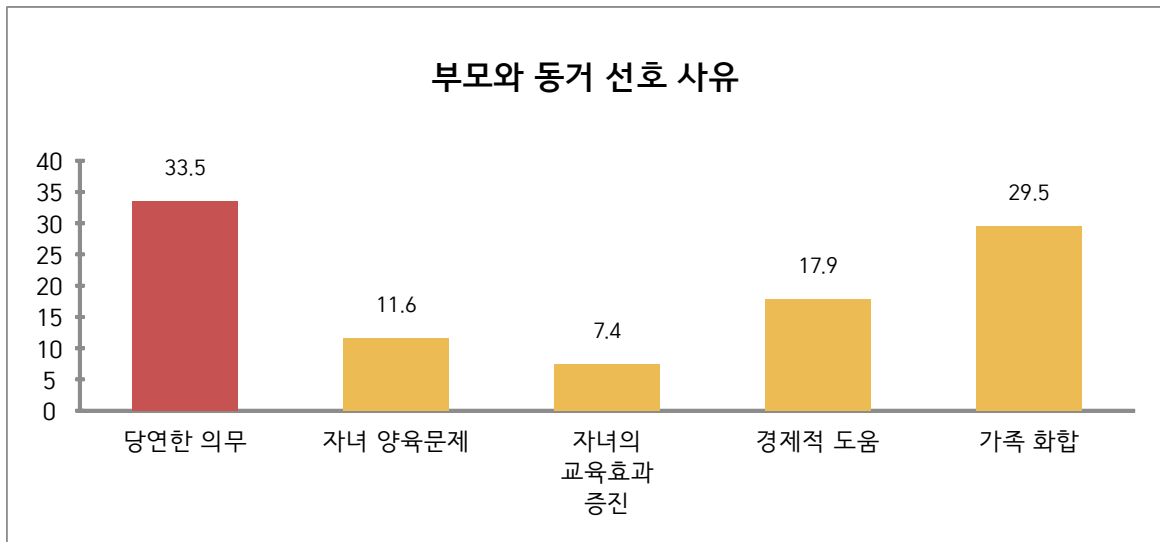


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, 「소음·진동」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, 「녹지·환경」은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

가 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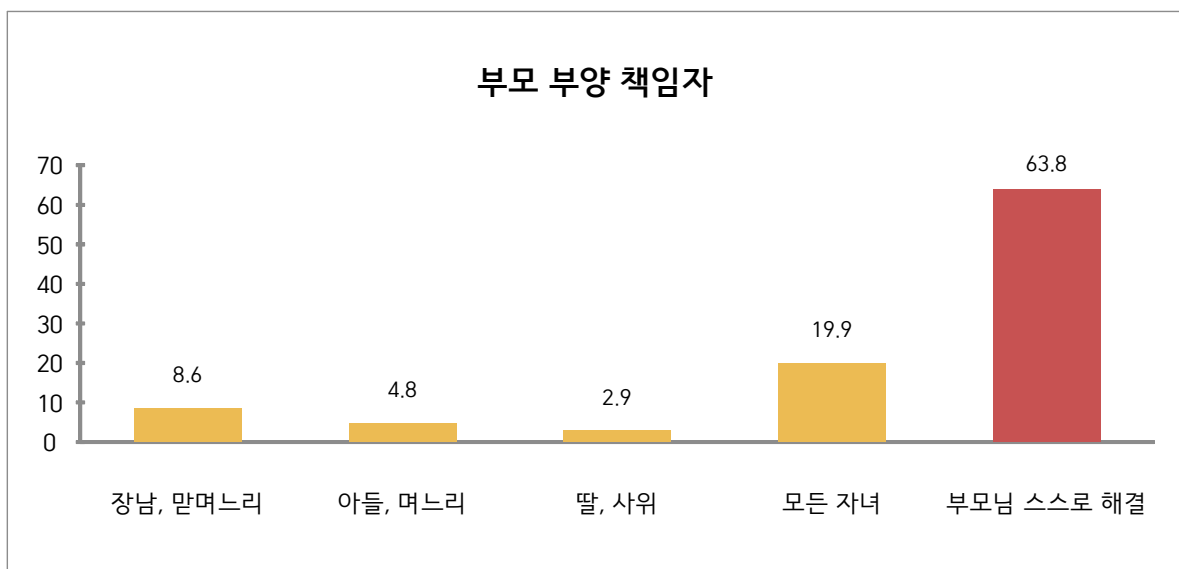
1. 선호하는 가족형태 및 부모와의 동거 선호 사유

- 선호하는 가족형태에서 부모와 동거는 16.1%, 부모와 비동거는 84% 임
- 부모와 동거 선호 사유는 「부모에 대한 당연한 의무」가 33.5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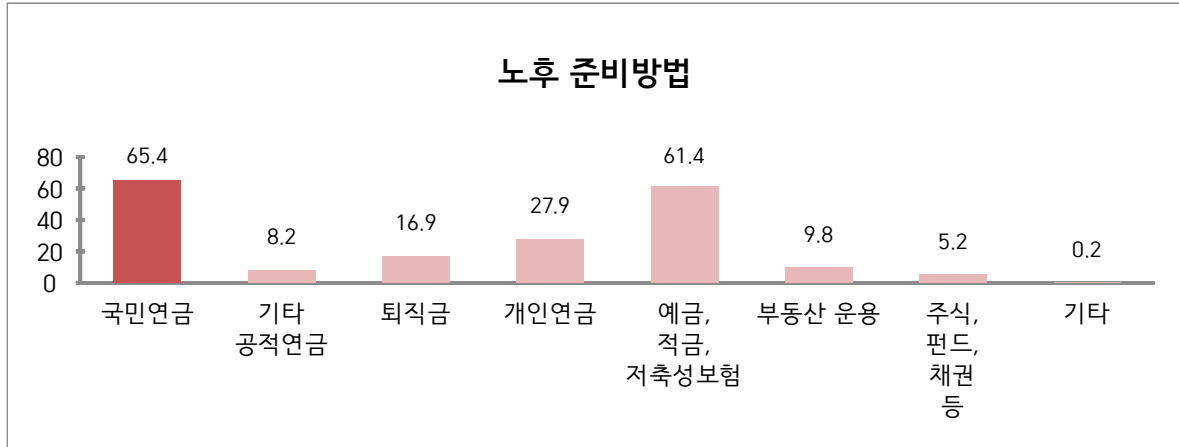
2. 선호하는 노후 생활형태 및 부모 부양 책임자

- 선호하는 노후 생활 형태는 「자녀 거주지와 무관하게 단독 생활(37.4%)」, 「자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단독 생활(28.2%)」 등 단독생활이 76%를 차지함
- 부모님의 부양책임은 「부모님 스스로 해결」한다는 견해가 63.8%로 가장 많고 「모든 자녀(19.9%)」, 「장남 또는 맏며느리(8.6%)」 순임



3. 노후 준비방법 (만30세 이상-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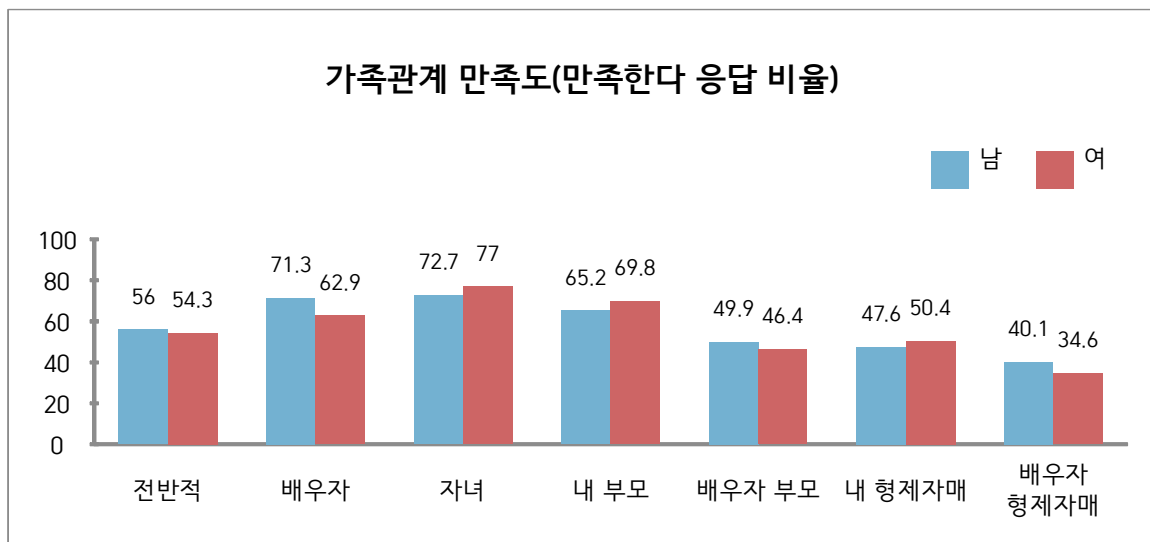
남구민 76%가 노후 준비하고(되어)있다고 응답했으며, 노후준비방법 1순위는 「국민연금(65.4%)」임



4. 출산을 증가 방안

「여성 근무여건 개선(22.9%)」이 가장 많고, 「공교육 역할 증대(13.8%)」, 「가구 소득 증대(13.1%)」순임

5. 가족관계 만족도



- 「전반적인 가족관계」에 대해 “만족한다”에 응답한 비율은 55.2%임
- “배우자와의 관계”를 보면 남편은 부인에게 71.3% 만족, 부인은 남편에게 62.9%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

사회통합

1.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

남구 구민이라는 것이 「자랑스럽다」고 느끼는 사람은 40%인 반면, 「자랑스럽지 않다」고 느끼는 사람은 8.8%임

2. 일반인에 대한 신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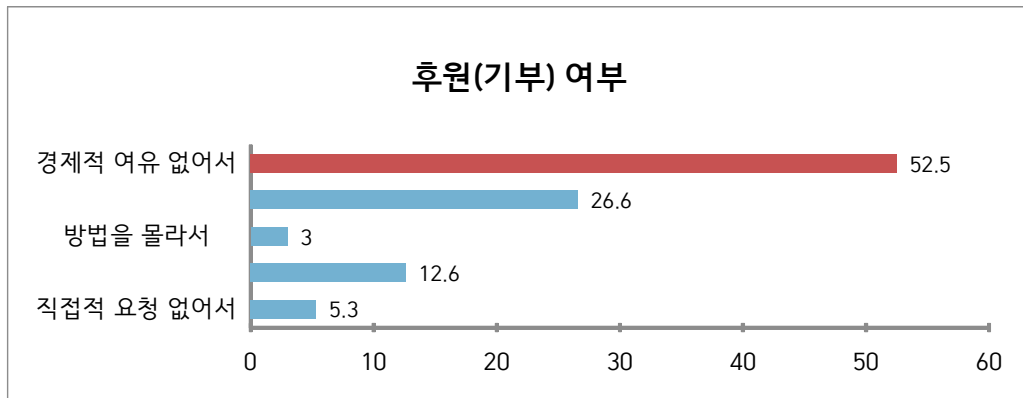
일반인에 대해 「신뢰할 수 있다」는 비율이 55.6%로 나타남

3. 기관신뢰도

2년 전 사회조사 시 중앙정부·시청·구청에 대한 「신뢰」 비율이 「신뢰하지 않음」보다 높았으나, 2022년 사회조사에서 「신뢰하지 않음」 비율이 「신뢰함」 비율을 역전함

4. 후원·기부 여부

기부 경험이 「있다」 경우가 15.7%이며, 「없다」에 응답한 시민들 중 기부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「경제적 여유가 없어서(52.5%)」라고 응답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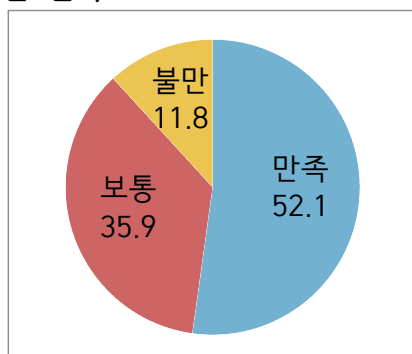
5. 자원봉사 참여율 지난 1년 동안 3.4%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

6. 주관적 귀속계층 「상층」이 2.1%, 「중간층」이 62.1%로 나타남

7. 공동체 의식정도

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 “아니다(51.9%)”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(18.9%)」보다 높음

8. 삶에 대한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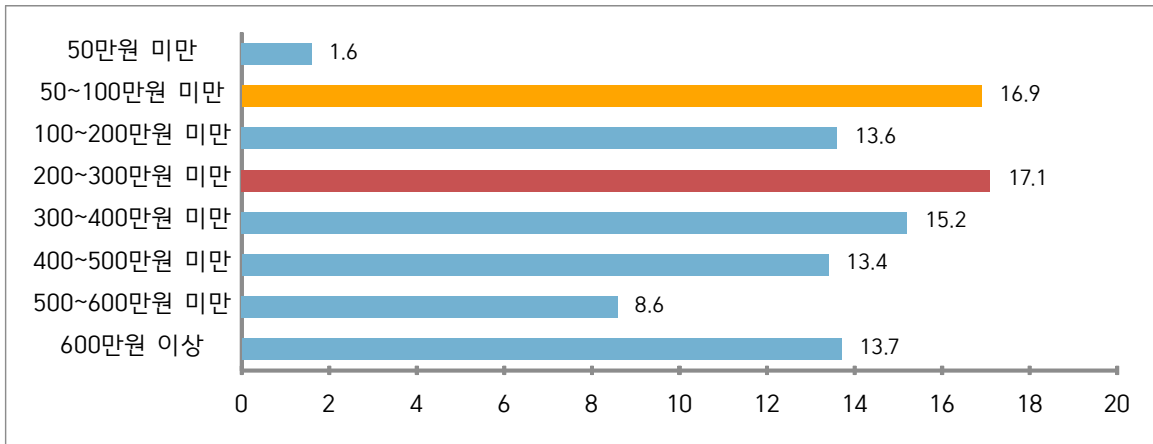


“삶의 전반적 만족도”에 대해 52.1%가 「만족」이라고 응답, 「보통」은 35.9%임

가구·개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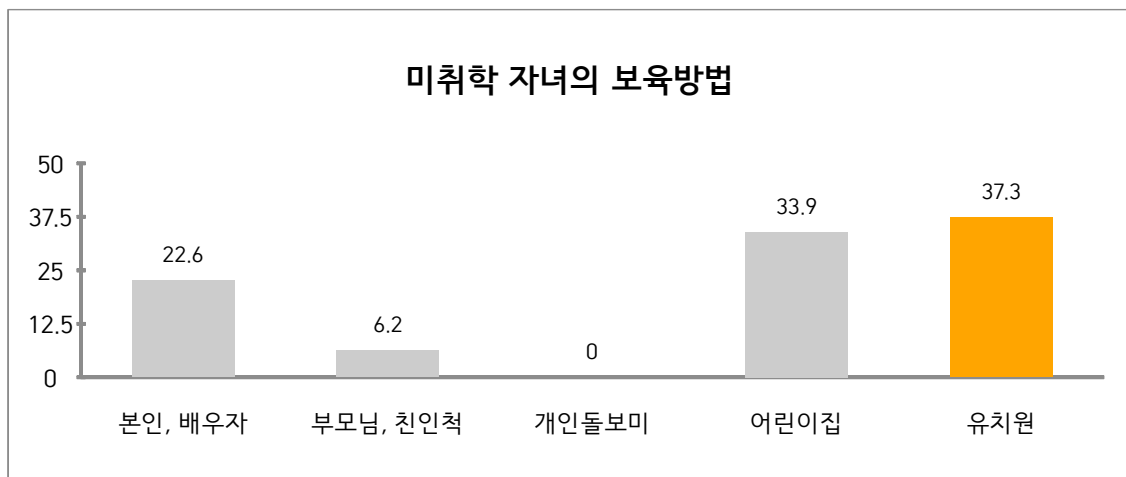
1. 월평균 가구소득

월평균 가구소득은 「200~300만원 미만(17.1%)」, 「50~100만원 미만(16.9%)」, 「300~400만원 미만(15.2%)」으로 나타남



2.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 및 만족도

- 미취학 자녀의 보육방법은 「유치원(37.3%)」, 「어린이집(33.9%)」, 「본인, 배우자(22.6%)」 순으로 높음



- 보육방법에 대해 85.5%가 「만족 한다」고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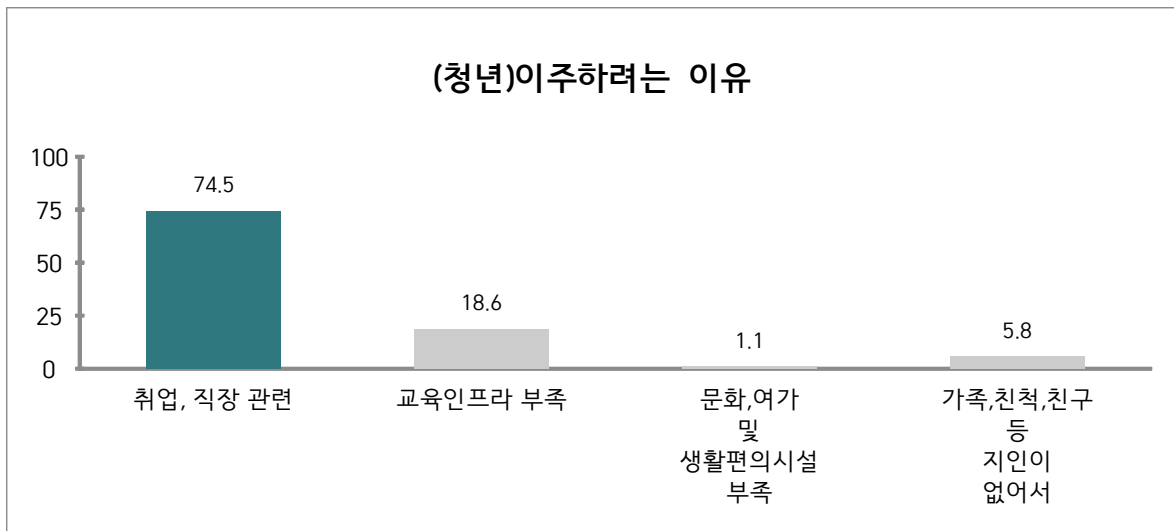
3. 유배우 여성의 맞벌이 여부 및 사유

- 유배우 여성 중 39.3%가 일하였으며 그 중 맞벌이(89.8%), 외벌이(10.2%)로 나타남
- 유배우 여성의 일하는 사유로 「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(35.3%)」, 「경력 유지 및 자기개발, 자아실현을 위해서(19%)」, 「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해서(15.6%)」 순임
- 「일하지 않았다(60.7%)」의 사유로는 가사(91%)가 가장 높음

기 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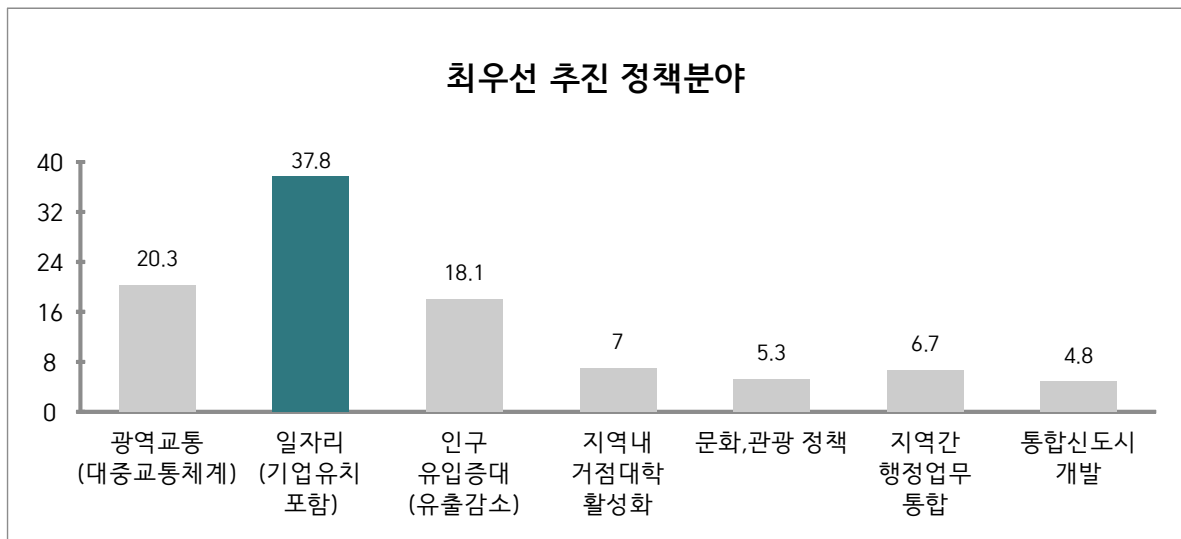
1. (청년) 이주계획

- 40세 미만 청년의 이주 희망지역은 “수도권”이 75.2%, “동남권” 19.5% 순임
- 이주하려는 이유는 「구직, 취업, 직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(74.5%)」, 「원하는 학교, 학원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해서(18.6%)」 순임



2. 최우선 추진 정책분야

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「일자리(기업유치 포함)(37.8%)」 「광역교통(대중교통체계)인프라 구축(20.3%)」, 「인구 유입 증대(유출 감소)(18.1%)」 순임



3. (베이비부머) 귀농·귀촌 계획

- 50세 이상 응답자 중 귀농·귀촌을 「전혀 원하지 않는다」는 응답이 89.2%, 「당장 계획은 없지만 원하고 있다」 9.9%, 「구체적인 계획이 있다」 0.9% 순임
- 귀농·귀촌을 원하는 지역으로는 「기타 다른 시·도」 44.8%, 「경남, 울산」 34% 「부산(강서, 기장)」 21.2% 순임